

침체 늪에 빠진 광주·전남 수출 '악화일로'

상반기 광주·전남 수출 279억2000만 달러...전년 대비 18.6% 감소 전남, 주력품목 철강판 수출 69.2% 감소 등 9개월 연속 수출 감소세

광주·전남지역 주력 산업의 수출이 부진을 털어 내지 못하고 있다. 세계적인 경기회복 지연으로 광주·전남의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지역경제에 빨간 불이 켜졌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18일 발표한 '2023 6월 및 상반기 광주·전남 수출입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광주·전남 수출은 279억 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으로 인한 주요 업황 부진과 수출 단가 하락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6% 감소했다는 게 무역협회의 분석이다.

이 같은 수출 부진은 중국과 미국 등 주요국 경기 회복이 지연된 데다, IT 업황 부진, 유가 하락

에 따른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 수출단가 하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수출이 고(高)유가 기조로 높은 실적을 기록하면서 올해 이에 따른 역기저 효과가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도 파악된다.

반도체 업황 부진에도 자동차 수출 선전으로 상반기 광주 수출은 소폭 증가(0.9%) 했으나, 유가 영향이 컸던 전남 수출은 25.4%나 감소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했다.

수출 품목을 살펴보면 IT 업황 부진으로 광주의 주력 수출 품목 중 하나인 반도체(-23.3%)를 비롯, 유가 하락으로 인해 전남의 주력 수출 품목인 석유제품(-24.4%)과 기초유분(-25.3%) 등이

20% 이상 감소세를 보였다. 전남의 또 다른 주력 수출 품목인 철강판 수출 역시 -69.2% 감소하는 등 수출이 반토막 났다.

반면 자동차는 누적 대기수요 실현, 친환경차 판매 호조 등 영향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1.5배(51.1%) 이상 증가하면서 수출액 37억2000만 달러를 기록, 광주·전남 수출액 3위 품목으로 올라섰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광주는 자동차 수출에 힘입어 대구, 경남 다음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인 0.9% 기록해 증가율이 3위를 기록했다. 이와 달리 전남은 충남, 세종 다음으로 가장 높은 감소율인 25.4%를 기록해 감소율 순으로 3위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6월 한 달만 놓고 봐도 광주·전남의 수출은 48억5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에 비해 소폭 완화되긴 했으나 여전히 20% 이상 수출감소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세를 보이고 있음

무엇보다 광주·전남의 수출 부진은 전남의 수출

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 컸다. 전남지역 수출은 33억 달러로 전년 대비 28.4% 감소했다.

더구나 전남은 9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지난달 3억 달러 적자를 비롯해 4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경제계의 우려도 큰 상황이다.

한편 광주는 수출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나 지난달 수출은 증가세로 전환, 무역수지도 9억9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면서 광주·전남 무역수지가 6억9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는데 기여했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전남은 철강재 및 유가 하락에 따른 가격 약세, 주요국 소비 및 생산 부진 등 영향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철강판 등 주요 품목의 수출이 크게 감소했다"며 "광주는 자동차 수출이 20% 이상 늘고 전기차 수출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는 것에 힘입어 수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반도체 대신 수출 이끈 자동차 올 역대 최대 577억달러 전망

올해 국내 자동차업체가 글로벌 수요와 수출 호조 지속으로 연초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올해 연간 자동차산업 내수가 전년 대비 3.6% 증가한 174만대, 수출은 12.8% 늘어난 262만대로 예상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내수가 전년 대비 2.2% 오른 172만대, 수출이 2.2% 증가한 235만대가 될 것이라는 연초 전망을 웃도는 수치다.

연간 내수는 상반기 수요 회복이 예상을 웃도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수출은 전 세계적으로 미뤄졌던 이연 수요에 더해 국내 제품 경쟁력이 높아지고 친환경차 선호가 지속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각각 애초 예상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협회는 전망했다. 협회는 친환경차 및 고가 차량의 수출 호조세 지속, 북미와 유럽 등 선진 시장의 대기수요, 후호적 환율 등 여건을 감안하면 수출액이 역대 최대 규모인 577억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농협전남본부, 집중호우 농작물 침수·과수 낙과 피해 현장 방문

박종탁 본부장, 피해 점검

농협전남본부(본부장 박종탁)는 지난 17일 화순군 능주면 복숭아 농가와 해남군 문내면 벼 침수 현장을 찾아 농업인을 위로하고, 피해 지원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전남지역은 최근 집중호우로 농작물 침수 및 과수 낙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날 농협 자체 집계자료에 따르면 전남지역 총 농업피해 면적은 약 3200ha로 조사됐는데, 장마가 계속 이어지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본격적인 출하를 앞둔 복숭아는 낙과피해 뿐만 아니라, 방제와 수확 작업이 모두 중단돼 출하물량 부족, 상품성 저하 등 추가 피해가 불가피해 많은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이날 피해지역을 방문한 박종탁 본부장은 호우 피해 농업인들의 현장 고충사항을 듣고, 피해상황 점검 및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박종탁 본부장은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우리 지역의 농작물 피해가 늘고 있어 안타깝다"며 "농업현장의 피해 복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박종탁 본부장이 화순군 능주면 복숭아 농가를 방문해 호우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농협전남본부 제공>



이마트 '원더플 캠페인' 체험존 운영

소비자 참여형 자원순환 캠페인

이마트가 한국 코카-콜라와 함께 '한 번 더 사용되는 플라스틱: 원더플 캠페인' 시즌4 오프라인 체험존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 '원더플 캠페인'은 한국 코카-콜라가 2020년부터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사용한 플라스틱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경험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마련한 소비자 참여형 자원순환 캠페인이다. 캠페인 명칭인 원더플(ONETHEPL)은 '한 번(ONE) 더(THE) 사용되는 플라스틱(PL)'을 줄인 말이다.

이마트는 21년 시즌2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3번의 시즌 참여를 통해 많은 소비자들에게 음료

페트병이 새로운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왔다.

올해 6월 시작된 시즌4에는 한국 코카-콜라의 캠페인 취지에 공감하는 이마트, 블랙야크, SSG닷컴, G마켓, 요기요, 테라사이클, WWF(세계자연기금)이 파트너로 참여한다.

이마트(트레이더스 포함)는 13일부터 용산점을 시작으로 4개 점포에서 오프라인 체험존을 순차적으로 운영한다.

온라인으로 원더플 캠페인에 참여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이마트 점포에서 캠페인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8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한 단계 상향...최고 11만4400원

오는 8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7월보다 한 단계 오른 '8단계'가 적용된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경우 8월 발권 국제선 항공권에 이동거리에 따라 추가로 붙는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1만5600~11만4400원이다. 이달 적용된 1만4000~10만7800원에서 소폭 올랐다.

아시아항공의 경우엔 편도 기준 1만6900~9만6000원이다. 역시 7월에 적용된 1만4400~8만

4000원에 비해 다소 인상됐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들이 내부적으로 세부 조정을 거쳐 책정한다.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1갤런=3.785ℓ)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총 33단계로 나뉘며 부과하며, 그 이하면 받지 않는다.

8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6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갤런당 220.61센트로 8단계에 해당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유가가 급등했던 작년 7~

8월 22단계까지 오르며 최대 33만9000원을 찍었다. 이후 지난해 3분기부터 하향 곡선을 그리다가 8월에 다시 한 단계 올랐다.

한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편도 기준 8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6600원으로, 7월보다 1100원 인하했다.

저비용항공사(LCC)는 티웨이항공(7700원 동결)을 제외한 모든 항공사가 6600원을 적용한다.

/연합뉴스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